

# 내 마음속의 불교 (하)

변종원 (대전시 서구 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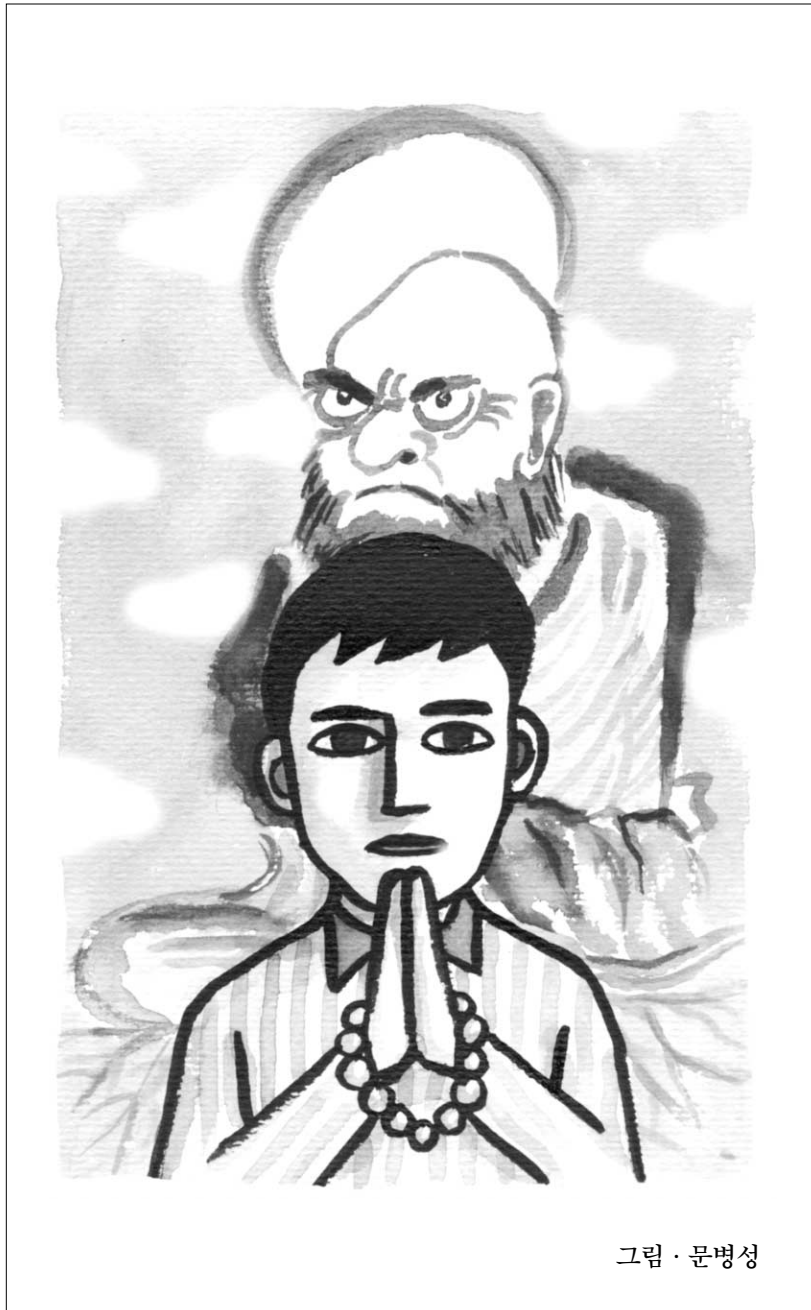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만 배! 이것은 108배라는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낮춤이고 반성이며, 미래에 대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만 배를 하기 위해 여러 번의 108배를 시작했을 때, 특정한 체력이 아니었던 나의 몸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속의 갈등만을 자아냈었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만 배에 얽매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만 배를 하기 전과 한 후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까? 법당을 찾았을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3배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등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108배 속에서 그 의문은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굽히고 등을 구부리며 몸에 힘을 흘리면서 하나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등산 전과 후에 갖는 느낌에서 오는 의문점을 등산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듯이 말입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경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개의 중간 목표와 수많은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작은 목표 하나하나의 성취는 중간 목표 달성에 힘이 되고, 중간 목표의 성취는 큰 목표에 다가서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의 마음속 큰 버림목(목표)이 되어줄 불교에 있어서 만 배는 큰 목표에 대한 작은 목표의 첫 성공작이 된 셈이었지요.

국군수도통합병원과 의왕사에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증대로 복귀한 후, 일주일에 한 번 중대에서 종교행사가 이루어질 때면, 나는 중대원들에게 불교에 관한 작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릅답게 성숙하다고 했던가요? 나의 생각과 말은 이전보다 넓고 깊어진 상태로,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부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경 구절에 대한 그

들의 호기심은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가며 풍성한 대화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불교행사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인해, 중대 종교행사 중에서 가장 잘 진행되어 중대장님은 목탁을 구해 오셔서 우리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군 제대하는 날,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게 해준 의왕사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먼저 법당으로 들어가, 만 배를 할 당시 한 법우가 선물한 염주를 꺼내들고, 부처님을 향해 108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사님과 군종병을 만나 감사와 중대 복귀 후의 생활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의왕사에는 나와 같은 심신의 아

목과 목에 차며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과 바르고 강인한 정신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 건설현장과 학원에서의 일을 통해 마련된 비용으로 그렇게 바라던 1년간의 중국유학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직장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을 향해 큰 포부를 안고 시작했던 중국에서의 직장생활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연로해가는 부모님과 가정을 꾸리는 것 등을 생각하니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여러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공무원 준비, 기존에 몇 년간 준비하고 해왔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새롭게

신세 조바심이 일기 시작해 학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의 번잡한 생각을 접고 들어간 곳이 보는 속리산에 자리 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비좁은 책상과 책장, 이불, 옷 등 모든 것을 다 갖춘 나의 작고도 큰 공간. 누구의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엔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했고 나를 안정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가져온 짐을 풀어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라디오도 핸드폰도 아니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연결된 작은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염주! 어딘가를 가면 항상 품고 다녔던 염주! 만 배를 같이 했던 그것!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염주는 효력을 다했는지 나의 큰 방과 땀 흘린 마음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사기 위해 대전 집에 들려 심심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경상남도 고성 청광화백의 달마대사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급한 나는 곧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사은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봐서 지나갔던 그 달마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에겐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막노동·유학생할 이어 '공무원' 도전 복잡한 생각 조바심 달래려 고시원 생활 마음 안정 뒤 공부에 매진해 '시험 합격'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으며 그분들은 나에게 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정신적인 힘과 의욕을 주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제대 후, 나는 중국유학을 가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1999년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에서 4개월간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침7시부터 오후6까지 근무, 그리고 나는 짧은 시간에 돈을 더 벌기위해 야간 근무 할 일이 생기면 자원에서 일주일에 2-3일씩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일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과 목이 움직이지 않아 마비가 된 줄 알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계속되어 일어날 땀 누운 상태로 먼저 눈으로 몸을 내려다보며, 손발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비된 양손을 들어 서로 비빈 후 풀어진다면 그 손으로 몸을 주무르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손과 목에 항상 와 닿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염주였습니다. 현장 일을 할 때는 몸에 지닐 수 없지만 잠자기 전 항상 손

시작해야 했던 마음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더 많이 남았기에 그리고 공무원을 하더라도 중국어는 꼭 능력을 살려서 발휘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중국어에 대한 열정은 마음속 한 쪽으로 접어두었습니다.

늦게까지 했던 공부, 짧은 직장생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취업시험 준비, 높은 경쟁률, 적지 않은 나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부모님 건강 등 나의 머릿속에는 어

어렵게 그 그림을 구해 고시원으로 돌아와 방안에 벽 3곳과 방문에 붙였습니다. 모든 악귀들과 잡념이 내 방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달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어느 때보다 안정되었고 잡념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긴 예전과는 달리 공부의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이후, 나는 합격했습니다. 현재 나는 가족들과 함께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을 가꾸고 있습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작곡자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한국산 6년근 인삼 9중 9포한

# 약 왕 사

## 名品紅蔘

(명 품 홍 삼)

“홍삼 엑기스 판매”  
“자 죽여 판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 제조원 : 약왕사 (왕술농산)

전 화 054)371-6665  
팩 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약왕사)

팔공산 동화사

# 비로암 하안거 대중모집

모집대상  
신심있는 불자 선착순 10명

모집기간  
불기 2550년 5월 10일 (음 4월 13일)  
출입자제도 결체 받습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비로암)  
TEL : 053)982-0223  
053)983-2248

제9교구본사 동화사  
비로암  
감원 수련 합장

부처님 소신날!  
찬탄·감사·공경의 성스러운 삼천배

# 58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대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인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 날 짜 : 2006년 4월 29일 (토요일) 저녁 9시  
2006년 4월 30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몸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않습니다.

장소 : 하산마음선원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보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교육 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산전차역 7번 출구 남산정미 회화전 50M 경유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http://www.dkt.or.kr)  
※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055)241-0374  
휴대폰: 011-833-0374

※ 남여 행사 모집합니다.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함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 전문과정 ● 맥진법 ● 사암침술 ● 효유요법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체내경맥진법, 맥소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주요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6. 5. 1  
월·화·수(주·야간반: 3개월 완성)  
토·일 전문기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로 과정까지 높아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윤과 월윤은 물론 일윤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기과정 정통풍수강좌

# 사암침술학회

• 서울: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02)747-9136, 011-307-2975  
• 부산: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051)804-8571, 018-312-7110